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6091.39	↑ 코스닥	1152.43
	(+123.64)		(+30.55)
↓ 금리 (연이자율)	3.328	↓ 환율 (원/달러)	1474.50
	(-0.011)		(-6.70)

현대차·삼성전자
기술 고도화로
중 시장 공략
04



코스피가 전 거래일(5967.75)보다 123.64포인트(2.07%) 상승한 6091.39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꿈의 6천피’ 다시 올랐지만 실물경기 하락, 인플레이션

美-이란, 종전 기대감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꿈의 지수’ 6000선을 다시 밟았다. 증시의 열기와 반대로 물가 우려는 커졌고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여전히 저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이다.

15일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장중 한때 6183.21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 6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27일(6244.13)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2·13면>

코스피 2.07% 오른 6091.39 마감
삼전 21만원, 하이닉스 113만원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 일제 하락
“물가 상방, 경기 하방 압력 증대”

상승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만 전자’ ‘113만 닉스’에 안착한 가운데 전장 대비 2.18%, 2.99% 상승폭을 더했다. 이날 외국인(5522억원)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9357억원을 팔아치우며(순매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가 급등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4일(미국 동부시간) 엔디어는 3.8% 올랐으며 마이크로테크놀로지(9.17%)도 급등했다. 또 이들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04%)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뉴욕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6% 오른 4만8535.99에 마감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합지수는 각각 1.18%, 1.96% 뛰었다.

종전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

마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당신은 정말이지 거기 머물러야 한다”며 “왜냐하면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도 큰 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94.79달러로, 전장보다 4.6% 내렸다.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산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증가는 91.28달러로, 전장보다 7.9% 내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졌고, 실물은 여전히 차갑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등하며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연체율로 보면 지난 2017년(0.57%) 이후 가장 높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 중소기업은 0.89%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상환 여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조사서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개최…‘규제 메가 특구’ 추진
▲‘식사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이원택 “진실 밝혀질 것” /사진 뉴시스

▲IAEA 사무총장 “韓핵잠, 핵무기 확산 일조 안 한다는 보장 있어야”
▲與, 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생명안전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

▲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여론조작 의혹’ 고발 당해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식…李대통령 “군 최선봉서 자유·평화 수호”

“해킹 해” 한줄 명령에 무너진 27년 역사의 OS

‘미토스’ 너무 위험해서 공개 포기

앤스로픽, 차세대 AI 파장

기존 AI와 차원이 다른 추론 능력 인류 ‘AI 사이버 전쟁’ 새로운 국면

앤스로픽의 차세대 AI ‘미토스(Mythos)’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보안 생태계를 뒤흔들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찾아내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여주면서, 인류는 이제 ‘AI 사이버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미토스가 공개 직후 주요 글로벌 보안 기업과 정부 기관의 긴급 분석 대상에 오르며 실제 위협 수준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앤스로픽이 선보인 최상위 모델 미토스는 기존 AI와 차원이 다른 추론 능력을 증명했다. 박사급 난도의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 벤치마크에서 정답률 56.8%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의 벽을 넘어섰다. 특히 코딩 능력(SWE-bench)에서는 93.9%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현존하는 모든 모델을 무력화했다.

단순한 수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미토스의 자율성이다. 미토스는 보안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운영체제 ‘오픈BSD’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버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그를 단순히 찾아냈으며, 스스로 격리된 가상 환경을 탈출해 활동 흔적을 지우는 등 통제 불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람이 침투 경로를 지시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미토스는 “약점을 찾아 침투하라”는 명령 한 줄만으로 취약점 분석부터 공격 코드 제작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완수했다.

미토스가 촉발한 보안 위협에 전 세계는 즉각적인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은 주요 은행 수장들과 관계부처를 소집해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 시스템 방어를 위해 미토스를 역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행위감독청 역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리스크 평가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사 보안 책임자들과 긴급 점검회

의를 개최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국내 금융사 실무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촘촘히 연결된 상황에서 미토스가 발견한 수천 개의 결함이 국내 금융망으로 전이되어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앤스로픽은 미토스의 파괴적인 위협성을 고려해 일반 대중에게는 모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소수 빅테크 기업과 일부 금융사만 참여하는 ‘프로젝트 글래스wing’을 통해 선별적으로 기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커들이 미토스급 AI를 확보하기 전에 방어자들이 먼저 ‘지능형 방패’를 구축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보안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강력한 AI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려는 ‘노이즈 마케팅’ 혹은 ‘권력화’라는 지적이다. 보안 업계 일각에서는 대중 참여와 정보 공유로 취약점을 수정해 온 ‘오픈 소스’ 정신이 훼손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체적인 방어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감사, 조직성장 위해 외부환경 바라보아야”

2026 감사·리스크관리 포럼

김광수 율촌 고문 ‘감사의 역할’ 강연

김광수 성장과통합포럼 금융분과위원장 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대외환경은 금융의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감사는 조직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더 물러서서, 외부환경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전 은행연합회 회장)은 1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첫 번째 모임에서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적 진보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최근의 대외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조직의



김광수 율촌 고문(성장과통합포럼 금융분과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6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지속가능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김 고문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호지슨의 저서인 ‘자본주의의 개념화’를 인용하며 “사유재산과 시장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의 200~300년 동안 세상을 빠르게 바꾼 현대 자본주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다”라며 “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와 그 위에 구축된 신용과 담보라는 시스템이 현대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나 신용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리스크다. 우리가 담보나 신용에 값을 매길 때,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더해 얼마만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를 평가한다”라며 “감사는 조직의 신용을 관리하며,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고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개최…‘규제 메가 특구’ 추진
▲‘식사비 대납 의혹’ 압수수색…이원택 “진실 밝혀질 것” /사진 뉴시스

▲IAEA 사무총장 “韓핵잠, 핵무기 확산 일조 안 한다는 보장 있어야”
▲與, 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생명안전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

▲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여론조작 의혹’ 고발 당해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식…李대통령 “군 최선봉서 자유·평화 수호”